

법적으로 보호되는 보람찬 노동생활

공화국에서는 그 어떤 가나 일터마다에서 혁신과 위훈의 자욱을 수놓아가는 근로자들의 향연이 넘쳐나고 있다. 얼마전 우리는 직장별, 작업별, 개인별 사회주의 경쟁열풍이 휘몰아치고있는 김승희조작공장을 찾았다. 이곳에서 우리는 인민경제 계획수행에서 공장으로 제일 앞선나가고있는 조사2직장의 김승희조작공장을 만났다. 그는 혁신의 비결을 묻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현대적이고 문화위생적인 노동조건이 갖추어진 일터에서 노동의 보람과 희열을 마음껏 느끼며 일하니 아무리 일해도 성취감이 넘칩니다.》

노동의 보람과 희열! 세상에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노동자들이 있지만 공화국의 노동자들처럼 노동의 보람과 희열을 느끼며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누려가는 사람들이 또 어디에 있었는가. 근로자들이 희망과 능력에 따라 노동조건이 훌륭하게 갖추어진 일터에서 보람과 희열을 누려가는 이 현실은 가장 우월한 공화국의 인민적인 법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공민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노동능력이 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노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공화국의 인민들이 향유하고있는 보람찬 노동생활은 이처럼 사회주의헌법에 의해 담보되고있다. 1978년 4월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노동법도 근로인민대중이 나라의 주인, 노동의 참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인민적인 노동환경, 공화국의 사회주의로동제도의 우월성과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법적으로 담보하는 인민의 법적으로 되고 있다. 사회주의로동법 제5조에는 사회주의하에서 모든 근로자들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모든 근로자들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국가로부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그리고 제50조에는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제와 함께 공과대학과 농과대학, 야간 및 통신교육 등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체제를 통



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최신 과학기술을 체득하고 현대적 기계설비를 잘 다루며 인민경제를 능숙하게 관리운영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로 키운다고 규정되어있다. 이에 따라 노동능력을 가진 근로자를 누구나 자기의 희망과 소질에 따라 국가로부터 일자리를 보장받았으며 국가는 생산에 앞서 근로자들의 건강과 편의를 먼저 보고 온갖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노동조건을 보장해주고있다. 또한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배우는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제도의 혜택으로 누구나 과학기술인재로 자라나 사회주의조국을 만들어내고있으며 현대적인 노동자합숙들과 정류양소, 문화후생시설에서 명망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향유하고있다. 하기에 공화국을 방문하였던 외국인들은 보람찬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공화국의 근로자들의 모습을 보며 《조선의 노동자들은 국가로부터 모든것을 보장받고 있다. 조선의 사회제도야말로 근로대중이 사회의 주인으로

무참히 짓밟히는 노동의 권리

사람은 태어나 자라면서 생존권을 가지며 일정한 나이에 이르면 경제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으며 노동의 량과 질에 따라 보수를 받고 휴식을 하며 노동능력을 잃은 경우 생활보장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는 반인민적인 노동정책으로 실업이 만연하고있다. 지난해 상반기 남조선에서 공식발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이 491만 6000명에서 2017년이후 140여만명이 늘어났다고 한다. 하기에 남조선에서는 《실업홍수》, 《실업사태》라는 말이 레사로운 말로 되고있다. 남조선에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늘어나고있는것도 심각한 문제로 되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비정규직노동자가 280만명에 달하고있다고 한다. 잠재적인 실업자나 다름없는 비정규직노동자는 정규직노동자들에 비해 임금이 적은데다 각종 차별과 학대,

합리적인 해고위협에 시달리고있다. 자본가들에게 있어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돈주머니를 불구어주는 《로동도구》에 불과하다. 남조선의 여성들도 같은 일을 하고도 남성들보다 매우 적은 임금을 받으며 극심한 차별을 받고있다. 지난해 남조선의 여성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남성에 비해 보통 30%정도 낮아 경제협력개발기구성원국들가운데 맨 마지막자리를 차지하였다고 한다. 남조선에서 근로자들은 비인간적인 노동조건과 환경속에서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당하고있다. 아무런 보호시설도 없는 현상에서 고된 노동을 강요당하다가 육체적, 정신적불구자로 될뿐 아니라 목숨까지 잃는 노동재해가 매일 같이 벌어지고있는것이 바로

남조선이다. 《로동자의 처지는 날로 열악되고 올분은 하늘로 치닫하고있다.》, 《이 땅에서 로동자는 무백한 존재, 재벌들의 돈벌이수단에 불과하다.》, 《이 땅에서 결코 달라질수도 바뀔수도 없는것이 바로 로동자들의 삶이다.》... 이것이 남조선로동자들이 터뜨리는 절규의 목소리이다. 지난 4월 남조선의 민주로총은 당국의 반인민적인 노동정책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전체별, 반로동정책의 폭주를 멈추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고용불안과 최저임금, 산업재해 등으로 죽음의 나락에서 신음하는 남조선의 각계층 근로자들이 참다운 삶을 위한 투쟁에 과감히 앞장서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본사기자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인민적인 사회제도

누구나 평등한 정치적권리를 행사하며 보람찬 삶을 누리고있는 공화국의 현실을 여러 나라 출판보물들이 광범히 소개전혀하고있다. 인도네시아의 《국제일보》는 《세금없는 나라》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전하였다. 《조선인민은 세금이라는 말자체를 모르고있다. 인기 어려운 사실은 이뿐이 아니다. 국가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해주고있으며 인민들에게 살림집을 무상으로 제공해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활동은 철두철미 인민생활향상으로 지향되고있다.》 파키스탄신문 《포린스코 아이즈》는 이렇게 전하였다. 《조선을 방문한 사람들은 서방의 선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목격하였다고 한결같이 말하고있다. 이 나라에서는 실업자나 거리를 방황하는 사람들을 찾아볼수 없으며 누구나 배움의 권리를 마음

껏 누리고있다. 조선은 인민을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내세우고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나라이다. 허나 서방나라들에서는 라민족 배타주의와 극심한 인종차별 등 인권유린행위들이 그칠새없다. 김일성김정일명령 전군벨라루시 조선인민의 친우협회의 한 성원이 출판물에 실은 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조선의 정책들은 한정된 분야가 아니라 전 국가적범위에서 누구나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전반적이면서도 완전한것이다. 또한 조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시종일관하게 실시되는 정책들이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계통적으로 끊임없이 향상시켜나가는 정책들이다. 수십년간 지속되는 국악한 제도와 봉쇄속에서도 인민적시책들이 변함없이 계속 실시되고 있다는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 이것은 조선식사회주의가 필승불패임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수리아의 한 인사는 조선의 인

민정권은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조선에서는 지난날 전대받고 멸시받던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이 각급 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선거운출되고있다. 이것은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조선의 사회제도가 인민적인 권리를 가지고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사람의 가치가 돈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조선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있다. 조선에서는 지방주권기관으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 각급 주권기관이 인민의 대표들로 구성되어있다. 모든 근로자들은 성별과 직업, 재산과 지식정도, 정견과 신앙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고있으며 나라의 주인으로서 국가관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있다.》 본사기자

조국을 마음에 안고사는 해외동포들

두번째로 보게 되는 조국의 모습은 2년전보다 훨씬 더 반짝거리며 눈길을 빼지 못했다. 2020년 설맞이공연에 참가하기 위하여 제일조선학생소년에출단의 한 성원으로서는 나는 또다시 조국을 방문할 행운을 지니었다. 조국의 맑고맑은 사랑속에서 훈련의 나날을 보내던 우리는 평양교예극장에서 관람을 하게 되었다. 극장은 관람자들로 꽉 차 있었는데 한복판의 좋은 좌석들만은 비어있었다. 지도원선생님은 일본에서 온 우리들을 특별히 여기에 앉도록 도와주고말해 주었다. 지정한 좌석에 앉자마자 한 녀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잘 보이는 좌석표를 구했는데...》 그 소리는 분명 내가 앉은자리를 보고 한 말이였다. 《제일조선학생소년에출단이 앉을 자리이니 미안하지만 다른 좌석으로 가주시요.》 그 녀성에게 지도원선생님이 하는 말이였다. 미안하다고 하고 고맙기도 하여 어쩔줄 몰라하는데 그 녀성은 상냥한 얼굴로 《몇살이나?》 하고 나에게 물었다. 녀성의 상냥한 표정, 목소리에 나는 《14살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 녀성은 《이역땅에서 우리 조국에 대해 알고 배우자니 힘들지?》 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나에게 말하였다. 녀성의 인종이런 목소리, 표정이 가슴속에서 스며들어 나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아, 이것이 조국이로구나!...》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다. 녀성의 너무도 정겨운 그 말에 나는 미소를 짓고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힘들 때도 많지만 우리결에는 항상 조국이 있기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자 녀성은 환하게 웃으며 나에게 말하였다. 《여기선 우리가 조국을 지키게 된다. 일본에선 동무들이 조국을 지켜달라요.》 이 말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날 평양의 기온은 -10℃. 얼어버릴것같은 바람이 불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여태껏 느껴본 일이 없는 인정의 훈훈한 바람이 불고있었다. 그 바람은 가슴속에서 불타오르는 불씨를 부채질해주는것만 같았다. 우연히 마주친 조국의 녀성의 당부가 내 마음속에 불씨를 심어주었다. 이 가슴속에 타오르는 뜨거운 불씨, 이름도 모르는 한 녀성이 나에게 지어준 불씨. 이 가슴속의 불씨가 있으면 이 역땅 어떤 차거운 얼음도 녹일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재일동포 최지세

평양시 중구역 동안고급중학교 조기성악반 뛰어난 성악가수들을 많이 배출한것으로 하여 널리 알려져있다. 새싹과도 같은 조기성악인재들을 거목으로 키워 주체음악예술의 화원을 만발하게 가꾸어가는 미더운 교육자들과우메는 리인회교원도 있다.

새싹과 행운

우리는 강당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있는 리인회교원을 만났다. 세련된 몸가짐과 청순한 목소리, 열정적인 그의 모습은 일흔살을 넘긴 녀성이라고 믿기 힘들었다. 년로한 나이에 힘에 부치지 않는가고 묻는 우리에게 그는 《학생들을 가르치느라하면 힘든 줄 모릅니다. 학생 그렇게 살아왔는걸요.》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의 아버지는 자습으로 음악공부한 산골학교 음악교원이었다고 한다. 어린시절 그에게 있어서 제일 기쁜 시간은 아버지부름에 앉아 노래를 배우는 때였다. 노래와 함께 곁을매매고 노래를 부르며 조국을 알게 된 산골소녀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앙예술단체의 성악배우로 되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예술의 대진성기가 펼쳐지던 1970년대에 피바다가죽던 성악배우로 있던 그는 크나큰 영광의 순간을 맞이했다. 당시 그가 출현한 녀성인오2총장을 보아주시 위대한장군님께서는 오늘 새싹을 찾았다고, 이렇게 새싹을 찾을 때가 제일 기쁘다고 하시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었다고 한다. 주체음악예술의 개화기가 활짝 펼쳐지던 때에 위대한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와 사랑속에 인민의 사랑을 받는 성악가수로 성장한 리인회교원이야말로 행운아라고 할 수



웃으시던 아버지장군님의 영상이 간직되어있었습니다. 새싹을 찾으실 때마다 그처럼 기뻐하시는 위대한장군님께 새싹으로 엮은 아름다움 다발을 드릴수만 있다면 더 바랄것이 없었습니다. 다기노화면 교실들과 전과실들, 불동수업실, 600석의관람석과 예술공연을 보장할수 있는 무대를 갖춘 강당, 복도들에 게시된 성악과 관련한 직판관들... 그 모든것들은 조기성악교육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다. 언제부러인가 교원들과 학부형들속에서 그를 두고 《소싹은 기적》라는 말이 돌기 시작하였다. 누구나 리인회교원에서 자기의 개성에 맞는 소리를 찾곤 하였던것이다. 그것은 변성전의 환성으로 성대를 보호하고 변성을 쉽게 넘기며 특히 조기환성때부터 소리결결이 들어감으로써 변성기이후 개별적학생들의 소리작성과 색갈에 맞는 성악교육을 보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 성악가후비육성에 바쳐온 30여년 >>> - 중구역 동안고급중학교 조기성악반 교원 리인회 -

다 빨리 진행할수 있기때문이었다. 처음 해보는 변성전의 환성기초교육은 쉽지 않았다. 의사가 매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듯 그는 매 학생들의 성대와 음, 소리색갈변화상태를 구체적으로 연구했다. 그후 그는 조기성악반 분과장으로 일하면서 다른 교원들과 힘을 합쳐 조기성악과 관련한 수많은 교육실천적 문제들을 연구확립하고 교육조건과 환경을 번듯하게 꾸려나갔다. 다기노화면 교실들과 전과실들, 불동수업실, 600석의관람석과 예술공연을 보장할수 있는 무대를 갖춘 강당, 복도들에 게시된 성악과 관련한 직판관들... 그 모든것들은 조기성악교육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다. 언제부러인가 교원들과 학부형들속에서 그를 두고 《소싹은 기적》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하였다. 누구나 리인회교원에서 자기의 개성에 맞는 소리를 찾곤 하였던것이다. 그것은 변성전의 환성으로 성대를 보호하고 변성을 쉽게 넘기며 특히 조기환성때부터 소리결결이 들어감으로써 변성기이후 개별적학생들의 소리작성과 색갈에 맞는 성악교육을 보

려주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오늘도 그는 그 노래의 가사와 곡을 잊지 않고있었다. 사진첩을 번지며 사랑스러운 제자들의 모습을 추억하면서 교육자로서의 긍지를 느끼고 책임감을 가다듬곤 한다. 그는 입가에 웃음을 띠었다. 《제중동포학생입니다.》 호기심이 통하여 자세한 설명을 부탁하였다. 《한때 최단위를 비롯한 제중동포학생들에게 성악을 배워준적이 있었습니다.》 연변사회에 음악성센터에서 사립하면서 그는 전중국 《홍타민》컵 어린이개인예술경연 등에서 특별상, 금상을 포함하여 60여명의 학생들을 입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들에게 얼마나 정이 들었는지... 그들과 헤어질 때 학생들은 노래 《코스모스》를 불

러주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오늘도 그는 그 노래의 가사와 곡을 잊지 않고있었다. 사진첩을 번지며 사랑스러운 제자들의 모습을 추억하면서 교육자로서의 긍지를 느끼고 책임감을 가다듬곤 한다. 그는 입가에 웃음을 띠었다. 《제중동포학생입니다.》 호기심이 통하여 자세한 설명을 부탁하였다. 《한때 최단위를 비롯한 제중동포학생들에게 성악을 배워준적이 있었습니다.》 연변사회에 음악성센터에서 사립하면서 그는 전중국 《홍타민》컵 어린이개인예술경연 등에서 특별상, 금상을 포함하여 60여명의 학생들을 입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들에게 얼마나 정이 들었는지... 그들과 헤어질 때 학생들은 노래 《코스모스》를 불



성악가후비육성의 밑거름이 되어 무대에서 마음껏 노래를 부르는것을 인생의 전부로 여기고있던 그것지만 위대한장군님께서 성악가후비육성을 키워내기 위해 조기성악반을 조직하도록 하시었다는것을 알고 중학교 음악교원으로 자진하여나섰다. 성공이 약